

‘체질적 소설쟁이’의 끝없는 열망

「빙벽」의 작가 高元政 - 그 사람과 작품

박덕규

시인·문학평론가

고원정은 60년대식 미남이다. 그의 생김새는 60년대에 방화계를 주름잡던 청춘 스타를 닮아 있으며, 그가 즐겨 부르는 명곡들은 거의 그 영화의 주제가들이다. 시대를 초월하여 두루 통할 만한 미남에 속하는 나로서는 80년대의 여자들이 60년대식을 좋아하는 데는 상당한 불만이 아닐 수 없다. 오해말기들! 그녀들이 그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녀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남달리 더 자주 시선을 주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경우이므로.

잘 생긴 외모만큼이나 부족함 없는 품성

같은 사무실에서 그와 지내던 시절 초기에 나는 외모만큼이나 부족할 것 없는 그의 품성에서 그 어떤 부족 요소가 그를 문학의 길로 인도했는지 궁금했었다. 나는 문학은 어떤 형태로든 그 문학가의 콤플렉스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거의 신봉하고 있는 편이라, 그의 경우처럼 강한 개성이나 괴팍한 기질 따위의 면모가 거의 안보이는 사람일수록 그 문학과 콤플렉스와의 상관관계는 대단히 복잡하게 된다는 점이 더욱 흥미로워지는 것이다.

어떤 평론가는 한 인간의 콤플렉스를 쉽게 개인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으로 나누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문학에서는 보통 가정적인 불행이 컸던 사람들의 콤플렉스는 주로 개인사적인 공간 위에서 나타나고, 상대적으로 그런 불행이 적은 환경 속에서 번민했던 사람들의 콤플렉스는 주로 비교적 보편적·사회적 공간 위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 따라서 나는, 세세한 일에 연연해하지 않고 편견이나 아집 같은 것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대학 때는 독방 하숙생활을 하고,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내세울 상황이면 아예 피해버리고, 만취해 정신을 잃고도 집에는 돌아가 택시요금을 아내에게 지불케 하는, 좀 뭐랄까, 자기를 무개성화시킴으로써 자기 페르소나를 유지하는 내성적 이기주의자인 그의 콤플렉스야말로 개인사적인 공간보다 보편적·사회적 공간과 어울림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이 생각은 그의 첫 창작집 「巨인의 잠」(현암사·1988)이 나왔을 무렵까지도 대단히 유효한 것이라고 믿어졌다.

그의 중앙일보 신춘문예(1985) 당선작 「巨인의 잠」은 내가 알기로 신춘문예소설 하면 떠올릴 80년대의 최대화제작이다. 이 작품을 나는 그해 1월 국군·논산병원 정형외과 병실에서 후송 무등병의 신세로 읽었다. 처음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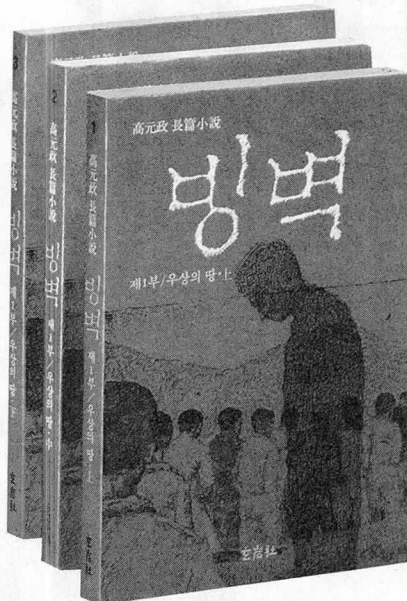
옆 동료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신문에서 당선 소감만 난 것을 보고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 당선은 무효다. 당선을 하려면 나의 예심을 반드시 거쳐야 했었다. 순서는 바뀌었으나 뒤늦게라도 나의 예심을 받아라”

사실 나는 입대 전 두 해 동안 그가 신춘문예에 투고한다는 작품을 미리 읽고 그 당락을 짐쳐 주곤 했었다. 그때 읽은 작품이 「巨인의 잠」에 실려 있는 「회색의 손」(이 작품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빙벽」 중의 백지시험사건으로 이어진다), 「등뒤의 살의」 등이다. 앞의 것은 내가 여지없이 낙선 쪽에 놓았던 것이고, 뒤의 것은 고개를 가웃한 작품이다. 물론 그것들은 낙선이었다. 그런데 그와 내가 일원인 ‘황선생(은사이며 작가)과 함께하는 모임’의 소식과 함께 국군병원으로 날아온 당선작은 과연 나의 예심통과를 추인받을 수 있는 훌륭한 단편이었다. 이후 그만의 독특한 정치적 알레고리 소설들은 대체로 이 당선 이후 씌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그 소설들은 보기 드물게, ‘가상국의 한 독재자가 복사사한 사실을 은폐·조작·미화시키는 발표문 작성 과정’(「수사학, 그 경향과 대책 1」)을 통해 ‘인류의 역사는 곧 지배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기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식을 얻어 내고, ‘평화와 공존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을 존재하게 해온 이념과 그 추종 종족을 저버리는 지도자의 변절때문에 철저히 희생당하는 한 개인의 갈등’(「갈연작」)을 통해 ‘개인의 진실은 그 지배자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의해 이용되고 목살된다’는 인식을 얻어 내면서 그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 자체, 즉 ‘인간본연의 정치 지향성’의 면모를 파헤쳐 나갔다. 그의 소설에 맨처음 ‘정치적 알레고리’라는 말을 붙였던 성민엽은 그 인식들이 단지 ‘비관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본래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타락한 세계의 폭력·억압에의 거부’와 ‘순수성의 동경과 열망’에 해당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에 맞닿아 있다고 말한다.

사회역사적 차원의 비극적 세계인식

그의 이러한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내부에 또다른 개인사적 콤플렉스가 있으리라는 어렵게 짐작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대체로 그의 콤플렉스는 인간본연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사회역사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그런 범위로 규정되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이 「빙벽」의



배대가 된 초고 「후작의 집」을 슬쩍 훑쳐본 기억과 작가의 설명만으로 책표지에 들어갈 비평가의 말을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의 이러한 비극적 세계인식은 첫 창작집 이후 특유의 방법론의 확산과 더불어 새롭게 「지금-여기」의 삶에 대한 재인식작업으로 무게를 더해가는 바, 「빙벽」은 그중에서도 군사문화로 대변될 이땅의 권위주의적 사회구조 속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남고자 하는 개인의 외로운 투쟁과 좌절의 이야기를 통해 역으로 체제에 길들여지고 안주하려는 우리의 또다른 본성을 여지없이 파헤쳐 보여줌으로써 자유와 순수성의 부단한 열망으로서의 초월주의를 완성하고 있다.”

「빙벽」 1부 3권이 나왔을 때 느려터진 독서버릇으로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완독해버렸다. 역시 소설은 많은 이야기거리가 복잡하고 조화롭게 엮히고 설켜야 재미이라는 생각은 이런 소설을 읽을 때면 언제나 상기된다. 특히 내가 아는 한 작중의 박지섭이 작가의 성장환경과 닮아 있어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읽었다. 나의 생각은 그의 성향이 보편적·사회적 공간과 쉽게 어울린다 해서 나름의 어두운 성장환경과의 관련성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변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박영효의 양자였고,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모든 잡기(바둑, 화투, 장기, 전자오락 등)에 손을 대지 않으며(그러나 잡기에 대해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도 드물다, 특히 스포츠에 관한 한 어떤 종목이든 TV해설가 이상이다. 고등학교때는 혼자 농구부를 창설해서 우승한 적도 있다, 또 숫자 암산은 도사급이다. 중학교 때까지 모든 과목에 수석이었고, 중학교 입학 때는

「빙벽」 1부 3권이 나왔을 때 느려터진 독서버릇으로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완독해버렸다. 역시 소설은 많은 이야기거리가 복잡하고 조화롭게 엮히고 설켜야 재미이라는 생각은 이런 소설을 읽을 때면 언제나 상기된다. 특히 내가 아는 한 작중의 박지섭이 작가의 성장환경과 닮아 있어 그의 얼굴을 떠올리며 읽었다.

소설에서와 똑같이 입시문제의 헛점을 지적하다 좌절된 천재였으며, 고등학교 들어서는 불량배 아닌 문체학생으로, 학생문단을 시와 소설로 주름잡은 문사로(당시 그의 학급 담임이었던 작가 현길언의 증언이 따로 필요할까?) 이름을 드높였다는 등의 사실을 나는 단지 그와의 사소한 대화속에서 얻어냈다. 따지고 보면 개인사적이지 않은 콤플렉스는 없다. 오히려 문학의 원천은 경험에 부딪치는 내성 자체의 콤플렉스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문학은 본연성의 깊이와 사회성의 넓이로써 그 영역과 가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빙벽」의 문학적 가치는 그런 류의 것이다.

“무리하지 말라”는 주문은 기우

앞으로 그의 소설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책표지에 설명되는 대로 ‘군사문화로 대변되는 전체주의 사회체제에 대한 항거와 그 좌절’ 정도밖에는 모른다. 그는 체질적인 소설쟁이다. 「빙벽」 외에도 양산되는 그의 소설은 편견으로 볼 필요는 없다. 체질대로 그는 구로역 앞에 자그마한 사무실을 내어 창작에 전념한 지 8개월이 된다.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주문은 기우에 불과하다. 「빙벽」을 내낸 봄까지 완간시키는 외에도 최근 거듭 발표중인 「憂國」 연작을 묶어 창작집까지 낼 계획으로 있다.

사족으로, 나는 고등학교 때 소설을 잘 써서 소설특기생으로 국문과에 입학한 반면, 그는 제주도 하구에서 ‘4:3배이비’ (이 말은 그가 술이 취했을 때만 하는 말인데, 나는 그 연유를 짐작할 길 없다. 이것도 그의 콤플렉스의 중요한 인자는 혹시 아닐까)로 태어나 신동→문제야로 성장하며 특히 시를 잘 써서 시특기생으로 나와 같은 대학에 나보다 4년이나 먼저 입학했는데, 서로 위치가 바뀌어 나는 시인이 그는 소설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둔다.